N.E.W. SEMINARY 설교 자료

하나님의 은혜

Hoon Kim 목사, 2026년 9월 27일, 요나 1:4-17

김정훈 목사는 요나서 1장 4–17절을 통해,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신뢰를 비우고 참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펼치시는 주권적인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을 밝힙니다. 배의 짐을 던지는 것부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데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구원하시는 긍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가르침: Hoon Kim 목사, N.E.W. Church. 설교는 목사님이 전하신 원문과 육성 그대로이며, 목회자 자료는 AI의 도움을 받아 영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무료로 듣고, 내려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newexodusseminary.org/ko/2026-09-27-new-jonah-1-five-means-of-grace-in-the/

한눈에 보기 · 가르침 노트 · 성경 본문 가이드 · 단어 연구 · 지명과 연대표 · 가르침 개요 · 학습 가이드 · 기도 · 복습 문제 · 3분 요약 · 한 주간 메시지

시각 자료

- 시각 자료 1: 하나님의 은혜
- 시각 자료 2: 히브리어 단어 ‘히틸’: 던지다
- 시각 자료 3: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대 유치한 신앙
- 시각 자료 4: 뜻밖의 메신저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 시각 자료 5: 우연에서 하나님의 필연으로
- 시각 자료 6: 너는 누구인가?
- 시각 자료 7: 십자가: 궁극적인 은혜의 방편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기: 폭풍 속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

- **한국어 제목:** 하나님의 은혜
- **영어 제목:** Five Means of Grace in the Storm

- **설교 일자:** 2026년 9월 27일
- **설교자:** 김정훈 목사
- **교회:** N.E.W. Church (New Exodus in Wilderness)
- **본문:** 요나 1:4–17

핵심 진리

인생의 거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기 신뢰를 비우고 주권적인 다양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참된 회개로 이끄시고자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요약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도망치는 선지자를 붙잡으시기 위해 바다 위에 맹렬한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김정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저 임의의 시련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은혜의 방편을 펼치신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곧 비우게 하시는 폭풍 그 자체,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한 돌려 말씀하시는 책망, 제비뽑기의 주권적 섭리, 이방 선원들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기적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땡깡으로 자기만의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보다, 참된 믿음은 삶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폭풍 속에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요나를 넘어 십자가의 표적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깨어진 죄인을 구원하시고 종교적 자아를 내려놓도록 부르십니다.

주요 흐름

1. **비우게 하시는 고난과 폭풍의 은혜 (요나 1:4–5)**: 폭풍은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짐과 인간적인 자부심, 종교적 자아를 벗겨 내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구입니다.
2.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대 유치한 요구 (히브리서 5장; 요나 1:4–5)**: 유치한 신앙은 자기가 정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땡깡 부리듯 요구하지만, 참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3. **이방인을 통해 돌려 말씀하시는 은혜 (요나 1:6; 요나 1:2; 요나 3:9; 사도행전 2:37; 사도행전 7:54–60)**: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닫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음성을 통해 영적인 잠을 깨우시고 회개로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4.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제비뽑기의 섭리 (요나 1:7)**: 세상이 단순한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으로 치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필연이며, 도망치는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도망치는 종을 주권적으로 추격하십니다.

5.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의 은혜 (요나 1:8–12; 시편 119:71)**: 이방 선원들의 집요한 질문은 피상적인 직함들을 벗겨 내고,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정통 신학적 고백과 반역하는 마음 사이의 깊은 괴리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6. **예비하신 물고기와 십자가의 은혜 (요나 1:13–17; 고린도전서 10:13; 마태복음 12:39)**: 요나가 순종하기보다 차라리 물에 빠져 죽기를 택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를 보존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며, 이는 궁극적인 요나의 표적이자 끝까지 추격하시는 십자가의 긍휼을 가리킵니다.

가르침 노트

강의 노트: 폭풍 속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 **예언적 풍자와 민족적 자기반성으로서의 요나서**: 요나서는 단순한 우화나 유치원 주일학교 아이들이 듣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구약 정경의 영감받은 선지서입니다. 요나는 열방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마음에 저항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만을 누리려 했던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민족주의적이며 자기의에 빠진 모습을 대변합니다.
- **'할머니 뼈해장국' 원리 (문자주의 대 문학적 해석학)**: 김 목사는 한국 문화의 유머러스한 비유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 '할머니 뼈해장국'이라는 간판을 보면, 실제 할머니의 뼈로 끓인 국이라고 생각하여 기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적 기법, 역사적 맥락, 관용 표현, 원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 문학을 단순하고 융통성 없는 문자주의로만 읽으면 기괴한 오해와 율법주의,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 **다시스 무역선에 대한 현대적 비유**: 욥바에서 다시스로 항해하던 배는 고부가가치 무역 상품을 싣고 가던 지중해의 고급 무역선으로, 오늘날의 국제선 화물기나 호화 여객선에 해당합니다. 이 화물을 바다에 던진 것은 선원들과 상인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파탄을 의미했으며, 이는 당시 폭풍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고고학, 지명 및 지리

- **다시스**: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요나의 목적지로 언급됩니다(보통 오늘날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소스와 연관됩니다). 다시스는 고대 해양 세계에서 서쪽 끝으로 알려진 경계였으며,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오늘날 이라크 지역)와는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정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 **지중해**: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주권과 권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무대로 묘사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망망대해를 혼돈과 공포의 신들, 혹은 길들일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보았으나, 성경 본문은 여호와만을 파도를 던지시기도 하고 잠잠하게도 하시는 유일한 주재로 제시합니다.

원어적 통찰

- **'던지다'(*tul* / *hiphil*형 *hitil*)의 반복**: 요나서 1장 1–3절이 '크다'(*gadol*)라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반면, 4–17절은 구조적으로 히브리어 어근 *tul*(투하하다, 던지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hitil*, 요나 1:4).
- 두려워한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vayyatilu*, 요나 1:5).
-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 속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hatiluni*, 요나 1:12).
- 선원들은 결국 요나를 거친 바다 속으로 *던졌습니다*(*vayyatiluhu*, 요나 1:15). 김 목사는 이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 주는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적 안도감과 인간의 자아를 버리고 비우게 하시고자 폭풍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 **부르심의 언어적 평행(*qum*, *qara*)**: 요나서 1장 6절에서 이방인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 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qum qəra*)고 명령합니다. 이는 요나서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두 개의 히브리어 명령형("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 사명을 피하려고 도망쳤으나, 하나님은 이방 선원의 입술에 자신의 직접적인 말씀을 두셨습니다.
- **배에 닥친 위협(요나 1:4의 의인화)**: 요나서 1장 4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배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vəha'oniyyah xiššəvah ləhiššaver*, 문자 그대로 "배가 스스로 부서질 것이라고 계산했다/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택한 안전한 피난처를 파괴 직전까지 흔드셨으나, 은혜롭게도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 **우림과 둠밈**: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흉패에 넣어 두었던 거룩한 제비뽑기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28:30). '빛'(*urim*)과 '온전함/성실'(*tummim*)을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되었으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적 진리와 적용

1. 우리를 비우시는 도구로서의 고난 (요나 1:4–5)

- 하나님이 보내신 위기는 우연히 닥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속적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 시련이 닥칠 때, 성도들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해결책(*해결책*)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인위적인 피난처를 사정없이 흔드셔서, 파산하고 망하거나 육체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하시지만 생명은 보존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자기 신뢰, 종교적 자아를 내려놓도록 이끄십니다.

2. 유치한 신앙 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히브리서 5장; 요나 1:4–5)

- **유치한 신앙**: 자기중심적인 땡깡을 부리는 것이 특징입니다(*땡깡 부리는 신앙*). 자기가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자동판매기나 이방 우상처럼 대하고, 영적 성숙이나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만족만을 요구합니다.
-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성숙하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신의 해결책을 강요하거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 주권적인 아버지 되심 그 자체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3. 돌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나 1:6)

- 성도가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의 말씀에 완고하게 저항할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 동료, 가족, 혹은 삶의 위기 같은 간접적인 전달자를 보내셔서 은혜롭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굳어진 양심을 찌르기 위해 빼앗긴 양의 비유를 사용했던 것처럼(사무엘하 12장), 하나님은 세상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십니다.
-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진리를 들을 때, 우리의 죄악 된 본성은 종종 방어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부부 갈등에서 배우자가 맞는 말을 지적할 때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는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겸손한 성도는 성령의 찔림을 깨닫지만, 마음이 완고한 자는 분노로 반응합니다(사도행전 2:37의 군중과 사도행전 7:54–60에서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의 대조).

4. '우연'을 넘어서는 섭리의 은혜 (요나 1:7)

- 믿지 않는 세상이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필연으로 알아봅니다.
- 하나님은 선원들의 제비뽑기까지 사용하셔서 요나를 지목하셨으며, 이는 어떤 인간의 제비뽑기나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 프랜시스 톰슨의 시처럼 도망치는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달아나는 영혼을 끈질기게 추격하시며 그가 굴복할 때까지 모든 탈출구를 차례로 닫으십니다.

5. 참된 정체성과의 직면 (요나 1:8–12)

- 선원들의 쏟아지는 질문(“네가 누구냐?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오느냐?”)은 겉치레에 불과한 직함들을 벗겨 냅니다.
- 인간의 정체성은 결코 자기 안에서만(이름이나 직업, 국적, 생물학적 종으로만) 온전히 정의될 수 없으며, 인격적이신 초월적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참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종교를 뜻하는 영어 religion의 어원인 라틴어 *religare*는 ‘관계를 맺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 요나는 흠잡을 데 없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의 삶은 자신이 고백한 신앙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순종이 결여된 완전한 교리는 뻔뻔하고 공허한 종교를 낳을 뿐입니다.

6. 예비하신 물고기와 십자가의 그림자 (요나 1:13–17; 마태복음 12:39)

- 요나는 회개하기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기를 택하며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인간의 완고함보다 더 큽니다.
- 하나님은 심판의 깊은 바다에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 김 목사는 40대 후반에 겪은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사임 후 아무런 대책 없이 수입도 없이 3개월 동안 독일에 머물며 한국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청구되는 카드 빚으로 불안과 원망에 시달렸으나,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 신실한 집사님이 몇 달 동안 모아 둔 십일조 수백만 원을 전달해 주어 하루아침에 빚을 모두 갚게 되었고, 이를 통해 목회로의 부르심을 확증받았던 일입니다.
- 요나의 표적은 궁극적으로 반역하는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땅속에서 밤낮 삼 일 동안 머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마태복음 12:39).

성경 본문 가이드

성경 본문 안내: 폭풍 속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

성경 본문 표

성경 본문	활용 방식	설교 본문 위치	김 목사가 본문에서 이끌어낸 교훈	확실성
요나 1:4–17	전문 봉독, 본문 강해	설교 전체	폭풍과 이방 선원들의 반응, 요나의 정체 폭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 하나님께서	높음

성경 본문	활용 방식	설교 본문 위치	김 목사가 본문에서 이끌어낸 교훈	확실성
			물고기를 예비하심 등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을 보여 주는 중심 서사.	
요나 1:2	인용, 히브리어 대조	이방인의 입을 통해 돌려 말씀하시는 은혜	선장이 요나에게 외친 "일어나 소리쳐 부르짖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직접 주셨던 바로 그 히브리어 명령형 동사(*qum*, *qara*)를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무시한 자신의 명령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 되울리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높음
요나 3:9	암시, 인용	이방인의 입을 통해 돌려 말씀하시는 은혜	선장의 말("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은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왕의 조서와 평행을 이루며, 요나가 완강히 거부했던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오히려 이방인들이 본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높음
요나 2장	암시	"너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묻는 네 번째 은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고상한 시적 언어로 가득 차 있지만, 통회하는 참된 회개라기보다는 종교적 자부심과 뻔뻔한 자기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높음
요나 4:6–8	암시	예비하시는 큰 물고기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뿐만 아니라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일치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쫓아가시며 훈련하십니다.	높음
히브리서 5장	암시	비우게 하시는 고난과 폭풍의 은혜 (2)	자신의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떼를 쓰는 유치한 신앙과,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신뢰하는 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구분합니다.	높음
사도행전 2:37	인용	이방인의 입을 통해 돌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청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	높음

성경 본문	활용 방식	설교 본문 위치	김 목사가 본문에서 이끌어낸 교훈	확실성
		말씀하시는 은혜	살까"라고 회개하며 돌아왔으며, 이는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사도행전 7:54–60	암시	이방인의 입을 통해 돌려 말씀하시는 은혜	사도행전 2장과 대조적으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고 귀를 막으며 그를 돌로 쳐 죽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에 직면했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높음
시편 119:71	인용	"너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묻는 네 번째 은혜	고난은 영적 안일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므로,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유익하다는 사실("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을 확증합니다.	높음
고린도전서 10:13	인용	예비하시는 큰 물고기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미쁘사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예비하신 큰 물고기)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높음
마태복음 12:39	인용	예비하시는 큰 물고기와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물고기 뱃속에서의 삼 일 밤낮)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가장 탁월한 표적으로 규정하시며,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십자가와 연결하셨습니다.	높음

예배 중 기타 본문

성경 본문	활용 방식	예배 순서	본문에서 이끌어낸 내용
욥기 23:10	회중 찬양으로 불림, 화면에 표시	다 함께 드리는 찬양 (~0:21:53–~0:23:18)	회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신뢰를 고백하는 데 사용됨.
고린도전서 11:24 (**마태복음 26:26** 암시)	육성 낭독	성찬식 (~0:44:00)	떡을 뗄 때의 제정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함.

성경 본문	활용 방식	예배 순서	본문에서 이끌어낸 내용
고린도전서 11:25 (**마태복음 26:27–28** 암시)	육성 낭독	성찬식 (~0:47:40)	잔을 들 때의 제정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선포함.

성경적 및 역사적 배경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인 기원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열왕기하 14:25).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한 군사적 확장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 동시대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호세아가 규탄했듯이 심각한 영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 민족주의적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삼았던 신아시리아 제국은 잔혹하고 팽창주의적인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요나가 지중해를 건너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친 것은 단순한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이방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으려 했던 계산된 민족주의적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초자연적인 폭풍으로 개입하셨을 때, 본문은 히브리 선지자의 영적 맹목과 완고한 민족주의를 이방 선원들의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경외와 겸손, 도덕적 진실성과 대조하여 보여 줍니다.

김 목사의 핵심 본문 적용

김 목사는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단순한 어린이용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과 완고함을 비추는 히브리 예언 문학의 정수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다섯 가지 분명한 "은혜의 방편(은혜의 수단)"을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1. **폭풍 (요나 1:4–5)**: 고난은 우리 안의 자기만족, 거짓된 안전망, 우상숭배적 집착을 비워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중한 긍휼입니다.
2. **선장의 꾸짖는 음성 (요나 1:6)**: 성도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외면할 때(요나 1:2),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상황 등 외부의 소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되울리시며 우리를 영적 잠에서 깨우십니다.
3. **제비뽑기 (요나 1:7)**: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끄시며, 우연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신적인 직면으로 바꾸십니다.
4. **선원들의 질문 (요나 1:8–12)**: 고난은 "너 누구냐?"라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 높은 정통 신학 지식("나는 바다와 땅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를 섬긴다")과 불순종하는 삶 사이의 처참한 간극을 폭로합니다.
5. **큰 물고기 (요나 1:17)**: 인간의 반역이 극에 달할 때조차("나를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품어 안으시고 구원할 길을 예비하시며, 십자가의 구속적 승리를 예표하십니다(마태복음 12:39).

보충 설명 및 명확화

- 설교 제2단락에서 김 목사는 히브리서 5장을 언급하며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14절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젖을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과 분별력을 갖춘 장성한 자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김 목사는 자기중심적으로 떼를 쓰는 “유치한 신앙”과, 아버지의 성품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대조했습니다.
- 제3단락에서 김 목사는 다윗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사무엘하 12장)를, 하나님께서 완고해진 양심을 깨우기 위해 돌려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성경적 예화로 사용하며, 이방 선장이 요나를 돌려 꾸짖은 일과 짝을 지어 설명했습니다.
- 제5단락에서 김 목사는 끝까지 사람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 결코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단어 연구

단어 연구: 폭풍 속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

1. *Gadol* (גָּדוֹל)

- **설교에서 전한 용어:** 가돌 (*gadol*)
- **원어 표기:** גָּדוֹל
- **김 목사가 제시한 의미:** “크다” 또는 “강대하다.” 김 목사는 요나서 1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여 배경과 사건의 거대함(큰 성읍, 큰 바람, 큰 폭풍, 큰 두려움, 큰 물고기)을 강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해당 구절:** 요나 1:2, 1:4, 1:17
- **설교 단락 제목:** 비우게 하시는 고난과 폭풍의 은혜

2. *Hitil* / *Tul* (הִטִּיל / טוּל)

- **설교에서 전한 용어:** 던지다 (*deonjida*), 내던지다 (*naedeonjida*)
- **원어 표기:** טוּל (히필형: הִטִּיל)
- **김 목사가 제시한 의미:** “던지다”, “내던지다”, “내리치다.” 한국어 번역 성경들이 4절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또는 “보내셨다”로 번역하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던지셨다”입니다. 김 목사는 이 단어가 요나서 1장 4-17절의 중심적인 문학적, 신학적 모티프로 쓰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폭풍을

던지시고, 선원들은 짐을 던지며,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선원들은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과 자아의 교만을 스스로 비워 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끌어 가심을 나타냅니다.

- **해당 구절:** 요나 1:4, 1:5, 1:12, 1:15
- **설교 단락 제목:** 비우게 하시는 고난과 폭풍의 은혜

3. *Qum* and *Qara* (קוּם / קָרָא)

- **설교에서 전한 용어:** 일어나라 (*ireonara*) / 외치라 (*oechira*), 부르짖으라 (*bureujijeura*)
- **원어 표기:** קוּם (*qum*) / קָרָא (*qara*)
- **김 목사가 제시한 의미:** "일어나라!" 그리고 "외치라 / 소리쳐 부르짖으라!" 김 목사는 요나서 1장 6절에서 이방인 선장이 잠자는 선지자를 꾸짖으며 한 말("일어나 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이, 요나서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바로 그 두 히브리어 명령형 동사("너는 일어나... 외치라")와 정확히 동일함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듣고도 외면했던 자신의 신적 사명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입에 두셔서 요나를 충격으로 깨우셨습니다.
- **해당 구절:** 요나 1:2, 1:6
- **설교 단락 제목:** 이방인의 입을 통해 돌려 말씀하시는 은혜

4. *Urim* and *Thummim* (אוּרִים וְתֻמִּים)

- **설교에서 전한 용어:** 우림과 둠밈 (*Urim-gwa Dummim*)
- **원어 표기:** אוּרִים וְתֻמִּים
- **김 목사가 제시한 의미:** "빛과 온전함"(온전함과 빛). 국가적 위기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필연적인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 두었던 거룩한 제비로, 성경에서의 제비뽑기가 맹목적인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분별하는 방편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해당 구절:** 요나 1:7 (구약의 제비뽑기 맥락에서 암시됨)
- **설교 단락 제목:**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제비뽑기의 섭리

5. *Religare* (Latin)

- **설교에서 전한 용어:** 렐리가레 (*religare*)
- **원어 표기:** *religare* (라틴어)
- **김 목사가 제시한 의미:** "단단히 묶다", "연결하다", "관계를 맺다"(관계하다, 연결을 맺다). 김 목사는 서구 기독교의 '종교' 개념(라틴어 *religare*에서 유래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함)과 동아시아 불교의 '종교' 개념(종교, 宗敎: 으뜸가는 최고의 가르침, 근원적인 철학적 가르침)을 대조하며, 사람은 오직

인격적인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해당 구절:** 요나 1:8–9
- **설교 단락 제목:** “너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묻는 네 번째 은혜

지명과 연대표

지명 및 연대표: 폭풍 속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

지명 표

지명	설교에서 전한 관련 사건	현대 위치	성경 참조
다시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상선을 타고 도망하려 했던 먼 서쪽의 무역 항구.	일반적으로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소스(안달루시아 해안)로 추정됨	요나 1:3
욥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상선에 올랐던 고대 지중해 항구 도시.	현대 이스라엘의 야파(텔아비브-야포 남부 항구 지역)	요나 1:3
지중해	여호와께서 맹렬한 폭풍을 던지신 바다로, 이방 선원들이 귀중한 화물을 던지고, 제비를 뽑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으며,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곳.	지중해	요나 1:4–15
니느웨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이방 원수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피하고자 했던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현대 이라크 북부의 모술	요나 1:2; 요나 3:1–3

지명	설교에서 전한 관련 사건	현대 위치	성경 참조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신적 정체성에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하셨던 내륙 담수호로, 요나서 1장의 선원들이 느낀 경외심을 반영함.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바다(긴네렛 호수)	마태복음 8:23–27; 마가복음 4:35–41 (제5단락에서 언급됨)
독일	김정훈 목사가 마흔 후반에 사임한 뒤 수입도 없고 카드 빚이 쌓여 가는 막막한 상황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던 나라로, 한국에 돌아온 직후 생각지도 못한 성도의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을 경험함.	서유럽의 독일	제6단락의 개인 간증

연대표

연대	사건	성경 또는 역사적 참조
기원전 약 782–753년	북이스라엘의 번영기였던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선지자 요나의 사역.	열왕기하 14:25; 요나 1:1
기원전 약 760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함;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폭풍을 던지심;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짐.	요나 1:1–17
서기 약 30 / 3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땅속에서의 삼 일 밤낮)을 들어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예표하심.	마태복음 12:39–40; 누가복음 11:29–30
서기 약 33년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삼천 명의 청중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함(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과 대조됨).	사도행전 2:37–41
서기 약 34–35년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하자, 청중들이 이를 갈고 귀를 막으며 그를 돌로 쳐 죽임.	사도행전 7:54–60
2010년대경	김정훈 목사가 마흔 후반에 독일에서 3개월간 머물며 빚과 불안으로 씨름하던 중,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심.	제6단락의 개인 간증

가르침 개요

강의 개요: 폭풍 속의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

- **본문 말씀:** 요나 1:4–17
- **핵심 메시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기 의존을 비우시고 다양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주권적으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제1막: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폭풍

- **핵심 말씀:** 요나 1:4–5
- **통찰:** 반복되는 히브리어 동사 *hitil*(“던지다”)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바다에 던지심으로써 선원들이 짐을 던지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비우시기 위해 거짓된 안전지대를 뒤흔드십니다.
- **예화:** 다시스로 향하던 무역선은 귀중한 상품이 가득 실린 국제선 화물기와 같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대 유치한 신앙:** 유치한 신앙은 당장의 해결책을 요구하며 자기중심적으로 땡깡 부리는 것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든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 (타이틀 카드), 시각 자료 2 (원어 연구: *Hitil*), 시각 자료 3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대 유치한 신앙).

제2막: 뜻밖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 **핵심 말씀:** 요나 1:6 (참조: 요나 1:2; 요나 3:9)
- **통찰:** 요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되돌려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qum, qara*). 요나가 선포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긍휼을 이방인이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예화:** 나단 선지자가 빼앗긴 어린 양 이야기로 다윗을 대면하여(사무엘하 12장), 다윗의 방어벽을 뚫고 숨겨진 죄를 드러냈던 일화.
- **반응:** 뜻밖의 메신저를 통해 책망받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7 대 사도행전 7:54–60).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4 (뜻밖의 메신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제3막: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섭리

- **핵심 말씀:** 요나 1:7
- **통찰:** 이방인들이 운이나 운명으로 여겼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신적인 제비뽑기를 주장하셔서 요나를 정확히 지목하게 하셨습니다.
- **예화:** 프랜시스 톰슨의 시(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도망치는 영혼을 끈질기게 뒤쫓으시며, 우리가 굴복할 때까지 모든 문을 닫으십니다.
- **적용:** “어느 성도가 자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예수나 잘 믿어라.” 이랬더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5 (우연에서 거룩한 필연으로).

제4막: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

- **핵심 말씀:** 요나 1:8–12; 시편 119:71
- **통찰:** 선원들의 빗발치는 질문(“너는 누구냐?”)은 요나의 정통 신학적 신앙 고백(“나는 바다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라”)과 주님을 피해 도망치는 반역된 삶 사이의 깊은 괴리를 폭로했습니다.
- **종교에 대한 통찰:**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religion*은 라틴어 *religare*(‘관계를 맺다’, ‘연결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나 직업, 국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정의할 수 없으며,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고난은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기계적인 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만듭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6 (너는 누구인가?).

제5막: 예비된 큰 물고기와 십자가의 그림자

- **핵심 말씀:** 요나 1:13–17; 고린도전서 10:13; 마태복음 12:39
- **통찰:** 요나는 회개하기보다 차라리 익사하는 쪽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 **김 목사님의 간증:** 마흔 후반에 사임한 뒤 아무 대책 없이 독일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며 막대한 카드 빚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귀국 직후 어떤 집사님이 몇 달 동안 모아 둔 십일조를 전해 주시어 하루아침에 빚을 청산하게 하셨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 **절정:** 요나의 표적은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7 (십자가: 최고의 은혜의 방편).

결단과 기도

- 하나님의 주권적인 폭풍을 피해 도망치는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교만과 자기 의존, 종교적인 가면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미 십자가를 예비하셨음을 신뢰하십시오.

학습 가이드

소그룹 스터디 가이드: 폭풍 속의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

핵심 진리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기 의존을 비우시고 주권적인 다양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 회개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십니다.

핵심 구절

>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 요나 1:4 (개역한글)

배경 설명

1. **요나서의 문학적 구조:** 요나서는 단순한 어린이용 도덕 이야기가 결코 아니며, 히브리 예언 문학의 정수이자 풍자적 걸작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영적 맹목, 민족주의적 자존심을 그대로 보여 주는 반면, 이방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도덕적 민감성, 경외감을 나타냅니다.
2. **핵심 동사 *Hitil*(던지다):** 히브리어 동사 *hitil*은 요나서 1장에 네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을 던지시고(4절),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며(5절),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12절),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15절). 이 반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비우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연출자이심을 강조합니다.

3. **선장의 명령에 담긴 거울:** 이방인 선장이 깊이 잠든 요나에게 "일어나 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6절)고 외칠 때 사용한 두 히브리어 동사(*qum*, *qara*)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명령하셨던 바로 그 단어("너는 일어나... 외치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종종 세상의 뜻밖의 통로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되돌려 들려주십니다.
4. **정체성과 *Religare*:** '종교'를 뜻하는 *religion*의 라틴어 어원(*religare*)은 '서로 묶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참된 정체성은 세상적인 성취나 직함,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겸손한 관계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1. **본문 이해:** 요나서 1:4–6을 읽으십시오. 노련한 이방 선원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 떠는 동안, 요나는 어떻게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현실 도피와 자기기만의 속성에 대해 무엇을 보여 줍니까?
2. **책망에 대한 성찰:** 6절에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선장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 혹은 가족과 같이 뜻밖의 인물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맹점을 지적하시거나 진리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대 유치한 신앙:** 김 목사님은 "유치한 신앙"(자기가 원하는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당장의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대조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씨름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이 둘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4. **고백 대 실제 삶:** 8–9절에서 요나는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학적인 앎과 일상적인 순종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5. **개인적 적용:** 요나서 1:17과 고린도전서 10:13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요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해결책을 붙들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한 은혜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신뢰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휴대폰용 요약 (WhatsApp)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시려고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달라고 유치하게 땡깡 부리지 말고,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 1:4 (개역한글)

기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요나 1:4-17

주님,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며,
주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성품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에 합당합니다.

도망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은 얼마나 집요하고도 크신지요!
주님은 우리를 단번에 멸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거짓된 피난처를 흔드시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서질 듯한 배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폭풍을 보내신 바로 그 손길로 우리를 구원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잠들어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요나처럼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 입으로는 바른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분노하며 마음의 벽을 쌓고 완악해집니다.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며 우리만의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모든 긍휼의 도구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을 비우게 하는 폭풍과,
잠든 우리를 깨우는 소리들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뽑힌 제비와 우리의 본모습을 보게 하는 질문들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재물과 성취와 종교적 자아라는 짐들을
바다에 내던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 겸손히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깨우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인간적인 해결책을 다 비워 내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일어나 가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갖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보시기에 기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1]

---

[1] 히브리서 13:20-21을 바탕으로 한 축도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이 된 성경 말씀: 요나 1:4-17; 요나 1:2; 마태복음 18:3; 사도행전 2:37; 에베소서 1:4; 마가복음 4:39-41; 마태복음 12:39-40; 히브리서 13:20-21.

Hoon Kim 목사의 설교와 함께 드리도록 AI의 도움을 받아 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닙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복습 문제

복습 퀴즈: 폭풍 속의 다섯 가지 은혜의 방편

이번 강의에서 제시된 성경적 가르침과 신학적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질문

1. 김훈 목사님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무미건조하게 읽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한 유머러스한 한국 문화 속 예화는 무엇입니까?
2. A) 옹기에서 발효된 김치
3. B) 할머니 뼈해장국
4. C) 날아다니는 어묵
5. D) 고추장 찌개

1. 요나서 1:4–17에서 중심적인 문학적, 신학적 모티프로 쓰인 반복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무엇입니까?
2. A) *Shub*(돌아오다)
3. B) *Gadol*(크다)
4. C) *Hitil* / *Tul*(던지다)
5. D) *Barak*(축복하다)

1. 김 목사님에 따르면, “유치한 신앙”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1. 요나서 1:6에서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요나에게 영적으로 소름 끼치도록 다가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2. A) 선장이 유창한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이다.
3. B) 요나서 1:2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바로 그 히브리어 명령형 동사(*qum*, *qara*)를 똑같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4. C) 선장이 거부할 경우 요나를 즉시 처형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5. D) 선장이 예루살렘에서 위장 잠입한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1. 하나님께서 완고한 죄인의 죄책을 드러내시기 위해 돌려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여 주고자 김 목사님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 A) 갈멜산에서 아합을 대면한 엘리야

3. B)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비유를 전한 나단
4. C)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대면한 모세
5. D) 아말렉의 가축 문제로 사울을 책망한 사무엘

1. 맹목적인 우연이나 운명으로 보는 이방인의 시각과 달리, 성경은 제비뽑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2. A) 이스라엘에서 항상 금지되었던 악마적인 죄악으로 본다.
3. B)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필연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섭리의 도구로 본다.
4. C) 영적 의미가 전혀 없는 순전한 인간의 놀이로 본다.
5. D) 시대에 뒤떨어진 이집트의 관습으로 본다.

1. 김 목사님이 서구의 '종교(religion)'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한 라틴어 단어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2. A) *Regere*(다스리다)
3. B) *Religare*(서로 묶다, 연결하다, 관계를 맺다)
4. C) *Relevare*(덜어주다, 가볍게 하다)
5. D) *Renovare*(새롭게 하다)

1. 요나서 1:9에서 요나가 선원들에게 한 신앙 고백 속에 담긴 명백한 모순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1. 김 목사님의 개인 간증에서, 독일 체류 후 막대한 재정적 빚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예비된 물고기"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까?
2. A) 교회 개척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3. B) 출판사가 그의 책에 대한 판권을 샀다.
4. C) 한 집사님이 몇 달 동안 십일조를 모아 두었다가 전해 주어, 하루아침에 빚을 모두 갚게 하셨다.
5. D) 독일에 있던 친구가 생활비를 전액 면제해 주었다.

1. 마태복음 12:39에 따르면, "요나의 표적"은 어떻게 궁극적인 구속사적 성취를 이룹니까?
2. A) 이방 제국들의 멸망을 통해서
3. B)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 C)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함을 통해서
5. D)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양식을 공급하심을 통해서

정답표

1. **B**, 할머니 뼈해장국 (섹션 1). 김 목사님은 문맥과 관용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글자 그대로만 읽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파괴적인 오류를 낳는지 보여 주기 위해 이 간판을 예로 들었습니다.
2. **C**, *Hitil / Tul*(던지다) (섹션 1). 여호와께서 바람을 던지셨고, 선원들이 짐을 던졌으며,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말했고,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3. “유치한 신앙은 내가 해답을 알고 있고 내 해답을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인 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와 아버지 되심,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섹션 2).”
4. **B**, 요나서 1:2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바로 그 히브리어 명령형 동사(*qum*, *qara*)를 똑같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섹션 3). 하나님은 요나가 외면했던 자신의 말씀을 이방인 선장의 입에 두셨습니다.
5. **B**,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비유 (섹션 3).
6. **B**,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필연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섭리의 도구로 봅니다 (섹션 4). 세상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안배입니다.
7. **B**, *Religare*(서로 묶다, 연결하다, 관계를 맺다) (섹션 5). 인간의 참된 정체성은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8.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바로 그 바다를 이용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정통 교리와 불순종의 삶이 정면으로 모순되었습니다 (섹션 5).
9. **C**, “어떤 집사님이 저를 생각하면서 십일조를 몇 달 모아 놓으셨는데, 그 십일조 몇 달 모아 둔 게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몇백만 원 그 빚을 한 방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섹션 6).
10. **B**,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섹션 6).

3분 요약

3분 설교 요약

N.E.W. Church 김훈 목사님이 전하신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폭풍 속 다섯 가지 은혜의 수단" 설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 삶을 흔들 때 우리는 그저 빠른 해결책만 찾으려 하지만, 고난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친 폭풍을 던지신 것은 그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행동이었습니다. 배는 거의 부서질 위기에 처했지만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기 의존과 소유, 그리고 종교적인 자존심을 비워 내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 은혜의 수단을 베푸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돌려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이방인 선장이 내려와 일어나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으로 그를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세상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필연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선원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신학적으로 완벽한 정통 신앙의 고백을 내놓았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백과 진정으로 일치하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요나가 주님께 굴복하기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길을 택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40대 후반에 모든 사역을 사임하고 돈도 집도 없는 막막한 상태로 독일에 3개월간 머물며 카드 빚이 쌓여 갔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택배 운전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며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 집사님이 몇 달간 모아 두었던 십일조를 전해 주셨고, 그 금액은 쌓여 있던 빚 수백만 원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는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였으며, 목회로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폭풍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물고기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시며, 우리를 십자가로까지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메시지

한 주간의 WhatsApp 메시지

1일차

요나 1:4-5

우리 인생의 고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에서 짐을 비워 내게 하시려고 큰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거짓된 피난처를 흔드시며,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긍휼을 베푸십니다.

질문: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워 내라고 하시는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2일차

요나 1:6

요나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이방인 선장이 다가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바로 그 명령의 말씀으로 그를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뜻밖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돌려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찔림을 줄 때, 분노하기보다 그것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질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3일차

요나 1:7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려고 제비를 뽑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나 운으로 여기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필연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도록 상황을 이끄십니다.

질문: 당신의 삶의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4일차

요나 1:8-9

선원들은 요나에게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요나는 정통 신학적인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고백과 일치하도록 "네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질문: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모습은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일치합니까?

5일차

요나 1:17

요나가 주님께 굴복하기보다 바다에 던져지기를 택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폭풍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물고기도 예비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는 우리를 십자가로까지 인도하십니다.

질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은 당신에게 어떻게 평안을 줍니까?

성경 본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인용했습니다.